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 Monthly ITS

06 2026 June Vol. 229  
www.its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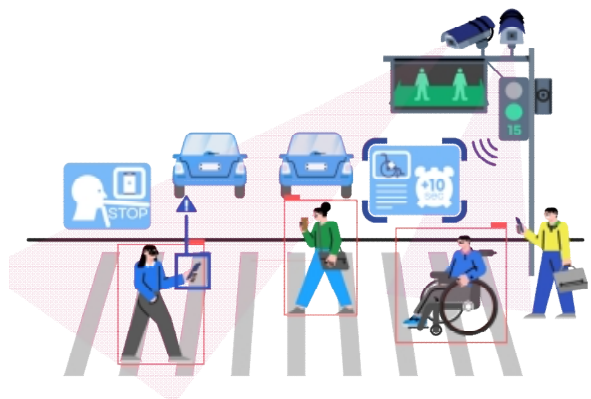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Monthly ITS 2026 06, 통권 2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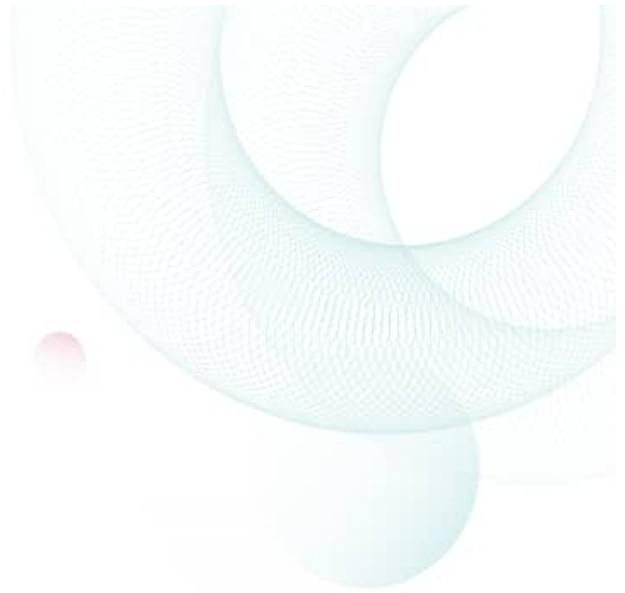
등록번호	ISSN 2508-8513
발행주기	월간
발행인	허청희
편집위원	정민철, 이형석, 김지민, 김영식
발행일	2026년 6월 2일
발행처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 ITS 인증 성능평가센터
전화	031.478.0451

지능형교통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 <Monthly ITS>는 국내외 ITS 정책부터 최신 산업 연구 동향, 실무에 필요한 발주 정보까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협회 홈페이지 e-Book으로도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협회의 자산으로,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전문적 견해이며, 본 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asiakys@itskorea.kr](mailto:asiakys@its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기고

- 2 초연결 시대, 물류와 ITS를 연계한 물류산업 혁신전략
- 10 지금은 Agentic AI 시대
- 18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강릉에서 펼쳐질 ITS의 미래

---

## 집중조명

- 26 AI 센서 융합과 암호화 기술로 스마트시티 안전을 선도하는 ㈜세오
- 32 도로 위 데이터를 시로 연결하다, AI 에이전트 기반 플스택 플랫폼 기업 엠큐넷(MQNIC)

---

## 정책이슈

- 40 침수 지하차도 통제정보, 내비게이션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
- 42 해수부 산업부, 자율운항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
- 4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 46 K-병선과 K-ITS의 전략적 만남, 고부가가치 패까지 수출모델 발굴
- 47 새만금,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첫 출발, 첨단 교통서비스 본격 검토
- 48 지역 맞춤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 49 “실려주세요” 바다 위 조난 음성, 시가 듣는다

---

## 법령제도

- 50 법령 제·개정 동향

---

## 월간토픽

- 54 ITS 관련 주요 뉴스

---

## 발주정보

- 60 공공조달 발주동향

---

## 협회소식

- 64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월간소식



## 초연결 시대, 물류와 ITS를 연계한 물류산업 혁신전략

### 서론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와 신속 배송 서비스 확대는 물류체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물류비 증가, 운송 지연, 탄소배출 확대, 화물차 운전자 부족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IT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도로, 차량, 물류시설, 교통관제센터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다. 특히 물류 분야와 ITS의 융합은 단순한 교통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물류 운영 효율성 향상, 운송시간 단축, 탄소배출 저감, 물류 안전성 강화 등 국가 물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디지털 물류 플랫폼 도입, 자율주행 물류 실증, C-ITS(Cooperative-ITS) 기반 화물차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ITS학회 스마트물류위원장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윤 경 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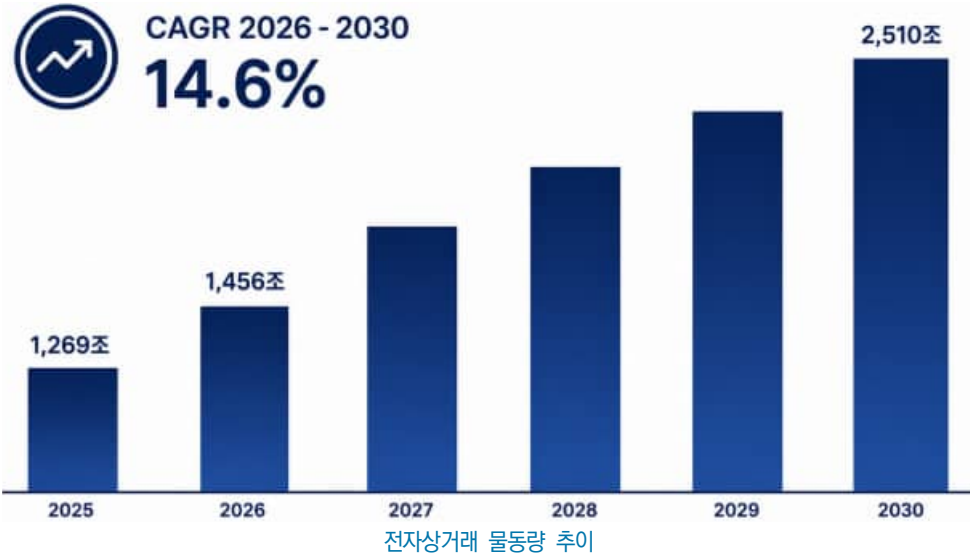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물류 인프라 간 정보 연계 부족, 데이터 표준화 미흡, 민간·공공 플랫폼 분산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물류와 ITS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물류산업의 변화와 ITS 필요성

### 전자상거래 확대와 물류 패러다임 변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당일배송·새벽배송 등 더욱 빠른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운영 방식도 기존 대량 운송 중심에서 실시간·소량·고빈도 배송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도로 혼잡과 물류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물류비 증가와 교통혼잡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물류체계는 화물 이동 정보와 교통정보가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ITS 기반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교통 상황과 물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물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 물류비 증가와 운송 효율 저하

국내 물류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도로 혼잡 심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의 공차 운행 비율이 높고, 특정 시간대 교통 집중으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ITS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 운행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차 운행 감소와 운송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류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송 안전성 확보와 사고 대응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 탄소중립과 친환경 물류 전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물류산업 역시 친환경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 화물운송은 높은 탄소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통 운영과 친환경 운송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ITS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는 불필요한 공회전 감소, 최적 경로 제공,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연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향후에는 전기·수소 화물차와 ITS를 연계하여 충전 인프라 정보 제공, 에너지 효율 기반 경로 안내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화물차 및 충전 인프라

## ITS 기반 스마트 물류 기술 현황

### 실시간 물류정보 플랫폼

실시간 물류정보 플랫폼은 차량 위치, 교통 상황, 배송 상태 등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GPS, IoT 센서,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배송 지연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물류 플랫폼은 과거 운행 데이터와 교통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배송시간 예측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 스마트 물류 플랫폼 화면 예시



### C-ITS 기반 화물차 안전관리

C-ITS는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도로(V2I), 차량과 관제센터(V2C)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이다. 화물차 운행 시 급정거, 전방 사고, 낙하물, 공사구간 등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제동거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자율주행 화물차 시대에는 C-ITS 기반 통신체계가 필수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C-ITS 통신 구조도

### 스마트 물류센터와 자동화 기술

스마트 물류센터는 AI, 로봇, 자동화 설비 등을 활용하여 입고·분류·보관·출고 과정을 자동화하는 첨단 물류시설이다. ITS와 연계할 경우 물류센터 내부 운영뿐 아니라 외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한 입출차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류 차량 도착 시간을 실시간 예측하여 하역장 배정과 작업 순서를 자동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할 경우 물류센터 운영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 운영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 자율주행 물류 기술

최근 국내외에서는 자율주행 화물차와 배송로봇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물류체계는 ITS와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도로 인프라와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고속도로 군집주행(Platooning) 기술은 여러 대의 화물차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방식으로 연료 절감과 교통 효율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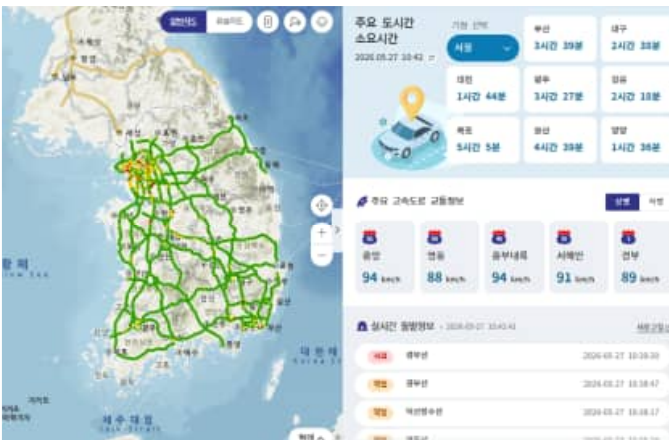
자동화 물류센터 내부

## 국내외 물류 ITS 연계 사례

###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ITS 기반 물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위험구간 알림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심 물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차량의 최적 운행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활용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는 항만 물류정보와 도로 교통정보를 연계하여 컨테이너 차량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국내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 해외 사례

유럽은 친환경 물류와 ITS 연계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철도·도로·항만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 최적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중심의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박·트럭·철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 화물차와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I 기반 물류 분석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스마트 물류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 물류 플랫폼과 무인배송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 물류와 ITS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국가 통합 물류 ITS 플랫폼 구축

현재 국내 물류 데이터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통합 물류 ITS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시간 물류정보와 교통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물류기업·지자체·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흐름 예측과 혼잡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이 구축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 데이터 표준화와 민관 협력 강화

물류 ITS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물류기업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 연계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 표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소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기술 도입 비용 부담 완화도 필요하다.

국가 통합 물류 플랫폼 예시



##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대

스마트 물류센터, C-ITS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 첨단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주요 물류거점과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심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형 스마트 물류 거점과 친환경 배송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조감도

## 친환경·자율주행 물류 지원

향후 물류산업은 친환경과 자율주행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기·수소 화물차 보급 확대와 함께 ITS 기반 충전·운행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결론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특히 ITS와 물류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결합을 넘어 국가 물류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와 물류정보의 통합은 물류 효율성 향상과 교통혼잡 완화, 탄소배출 저감, 물류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과 AI 기술 발전은 향후 물류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통합 물류 ITS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대, 친환경·자율주행 물류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교통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금은 Agentic AI 시대

## 기술적 진화: Search to Action

### LLM의 한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뛰어난 자연어 이해 및 문장 생성 능력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초기 LLM은 특정 가상 환경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인간이 제공하는 입력값(Prompt)에만 기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가졌다.

이런 정적인 응답 구조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단계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정보 검색 모듈을 결합한 검색 증강 생성(RAG: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해 LLM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최신 정보 접근성은 보완되었으나,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역시 정보를 수집하고 변환하는 도구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무 단계의 복잡한 실행 계획 수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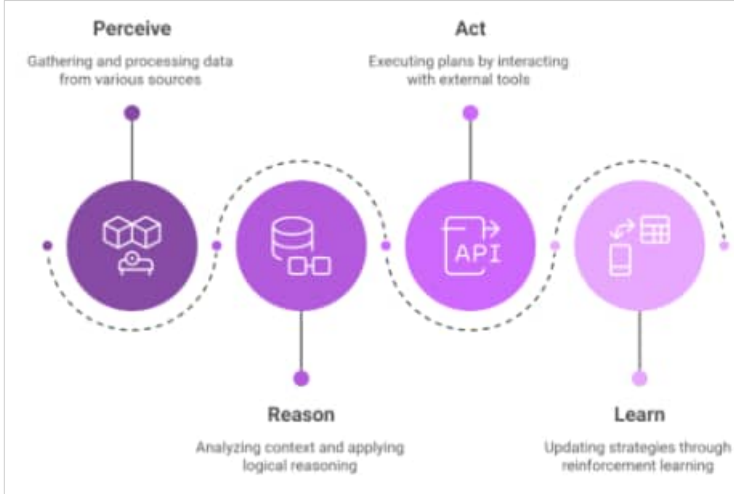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박찬술 연구위원

### Agentic은 결과 평가로 셀프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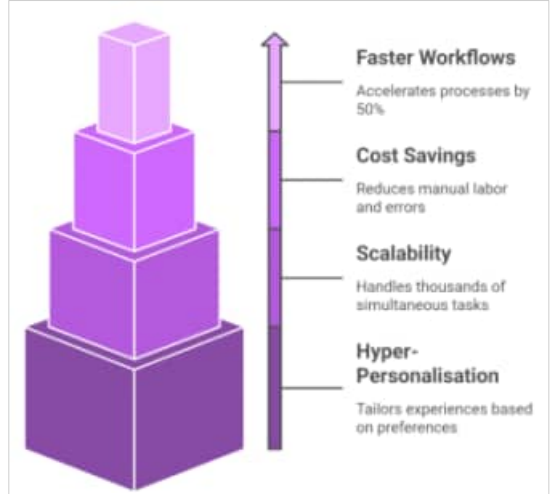
이러한 기술적 공백을 메우며 등장한 Agentic AI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텍스트 답변기를 넘어, 사용자가 제시한 고차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기존 LLM이 정교한 이메일 본문을 작성하는 것에 멈추었다면, Agentic AI는 조직 내 시스템 승인 권한 아래 마케팅 데이터베이스에서 1) 주요 고객 정보를 식별하고, 2) 개인화된 메시지를 구성하여 외부 API망을 통해 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행력(Actionability)을 가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Agentic AI의 자율적 작동 방식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도구 활용 및 실행, 결과 평가 및 보정 등 4단계 프로세스를 순환한다. 순환적 흐름은 예기치 못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스로 계획을 조정하는 자가 교정 추론(Self-correcting reasoning)이 가능해져,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Agentic AI 문제 해결 Loop



기업이 Agentic AI를 보는 관점

## Agentic AI 모델 및 관련 기술

### OpenAI vs. Anthropic 모델

Agentic AI 기술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인 상용 솔루션과 고도화된 연산 효율성을 지향하는 로컬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조율하는 다중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OpenAI가 발표한 '오퍼레이터(Operator)'는 자연어 지시를 통해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퓨터 활용 에이전트(Computer Using Agent)이다. 오퍼레이터는 가상 브라우저 내에서 웹 화면의 요소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뒤 클릭, 입력, 스크롤링과 같은 정교한 행위들을 자율적으로 실행한다. 만약 태스크 진행 도중 차단 페이지나 CAPTCHA 입력 등의 비정상 상태를 마주치면 자체적인 자가 교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 조작 권한을 일시 양도하는 하이브리드 협업 방식을 취한다. 또한 금융 결제나 로그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행위는 사람의 승인 단계를 요구하는 한편, 전용 모니터링 모델이 백그라운드에서 실시간으로 피싱 사이트 유동나 비정상 데이터 추출 시도를 감시하고 작업을 즉각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은 마우스 픽셀 위치를 계산하여 컴퓨터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기능을 클라우드에 내장했다. 기존에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특정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호출해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다면, 앤트로픽의 Claude는 PC 내 내장된 상태로 직접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하고, 타이핑한다.

엔트로픽은 Agentic AI를 구현하기 위해 5가지 디자인 패턴을 소개한다.

- ① Reflection(답변 생성 후 스스로 검토해서 최적의 결과물 생성) : 실행하는 방식은 초안 작성 후 사실성/일관성/안정성 등을 점검하고, 응답의 신뢰도를 추정해 후속 행동을 취한다
- ② Tool Use(필요한 도구를 언제 쓸지 모델이 스스로 결정) : 입력 질문을 분석해서 규칙 혹은 학습 기반인지 판단하고, 표준화된 템플릿으로 툴을 호출하고, 툴의 출력을 감산, 교차검증 등으로 검증한다. 여러 툴을 순차나 병렬로 연결해서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한다.
- ③ Planning(복잡한 목표들은 하위 작업들로 쪼개, 순차적으로 실행 계획 수립) : 작업을 상하위로 분류하고, 병렬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패나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체 경로를 설계/정의하고, 실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며, 실시간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재작성하기도 한다
- ④ Multi-Agent(여러 AI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결과 완성) : 작업을 Agent별로 분업해 병렬 처리하는데, 먼저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중앙 조정자를 두고 에이전트 간 결과 상호검증, 합의 등 진행하며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두고 처리한다.
- ⑤ Dynamic Routing(질문/문제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처리 경로 탐색) : 입력값 카테고리 난이도를 정의하고, 비용/지연/신뢰도/리소스 가용성 등 고려한 규칙대로 실행한다.

Claude Agentic Tool 중에서 Claude Code의 흥행이 고무적인데, 미국 개발자 커뮤니티 내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B2B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Agentic AI 서비스다. 코딩 성능도 압도적이라는 평가는 받지만 범용 환경이 아니라, Agentic Tool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개발자들의 맞춤 서비스라는 점에서 OpenAI와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델별 사이즈 vs. SWE 벤치마크 퍼포먼스



## 국가/기업의 Agentic AI 활용/대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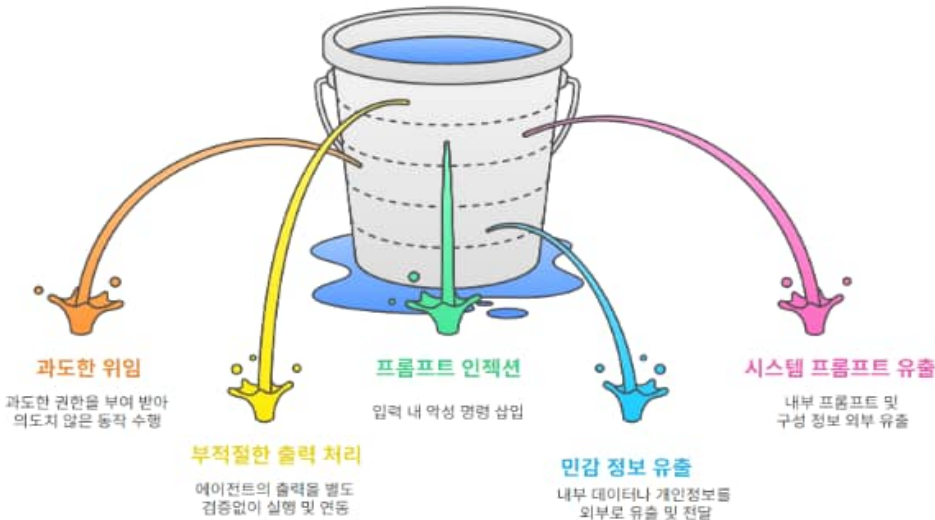
### 데이터 보안 vs. 생산성

글로벌 차원의 Agentic AI 활용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율성 증가와 비용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 움직임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특정 도메인 내에서 반복되던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업무 방식을 지능형 자율 제어로 대체하고 있다.

핀테크 대기업인 페이팔(PayPal)은 금융 네트워크 내 결제 이상 징후를 자율 수사관 형태로 감시하는 에이전트를 선제 배치하여 사기 피해액 비율을 자사 매출액 대비 0.32% 수준까지 낮추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평균치 1.32%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피해금액이다. 독일의 지멘스(Siemens)는 제조 라인의 수천 개 진동 및 열 센서 정보를 예측 진단 에이전트와 자율 연동하여 물리 기기 오작동에 따른 다운타임을 기존 대비 40%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아마존(Amazon)은 물류센터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Picker와 실시간 협업하는 이동형 주황색 로봇 드라이브 유닛을 활용하며, 온라인 쇼핑 고객 만족과 가동 효율 향상을 동시에 잡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35%에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에이전틱 추천 매커니즘을 적극 운용하고 있다. 물류 허브를 선도하는 DHL 또한 공급망 경로 지연 방지 및 마지막 인도 지점(Last-mile) 배송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지능화 도구로 적용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Agentic Tool을 사용해 회사에서 필요한 코딩의 작년 50%, 올해는 75% 수준으로 AI가 생성하는 것으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이러한 고도의 인공지능 확장에 대해 주요 서구 국가들은 보안과 위험 제어를 위한 제도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 에이전트의 보안적 위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공공 조달 절차 규격에 에이전트 모니터링 가이드를 설계하였고, 자국 내 주요 공공 조달 사업에 배포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보안 Trail을 최소 90일 동안 보존하게 하는 계약 조건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법적 및 도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 법적 강제성을 지닌 'EU AI Act'를 공식 제정하였다. 특히 고위험군(High-risk AI systems)에 입각한 인력 임용 자격 검수, 개인 신용/금융 평가, 주요 인프라 제어 등 목적의 인공지능 배포 시에는 반드시 고품질 데이터의 훈련 보증/데이터 보존 및 로깅 투명성/인간 감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Agentic AI 활용의 잠재적인 리스크



##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향

### Make the Loop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 혁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에이전트 도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지점을 정확히 분류하여 도입해야 한다.

삼성SDS의 세부 사용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인 마켓 동향 수집 보고서 집필이나 고객 소통 센터의 인바운드 접수와 같이, 입력과 출력 단계가 규격화되어 있고 일정한 절차대로 수렴되는 반복도가 높은 정형 업무에서 에이전트 사용 빈도수가 집중되고 있으며, 도입 투자자본 대비 효율(ROI) 또한 높게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자동화에 착수할 때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구축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은 '인적 검증 기반 피드백 선순환(Feedback Loop)' 체계이다. 초기 단계에 배포된 지능형 에이전트의 완성도는 약 60% 안팎에 머무를 수 있다. 이때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거나 품질이 미흡한 40% 영역의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잡아 검사 및 수정한 뒤 이를 피드백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변환된 데이터를 정제하여 고품질의 재학습 데이터셋으로 가공하고, 이를 다시 모델 가중치에 강화 학습 기법으로 에이전트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영구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만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력 부담은 최소화하고 업무 완결성은 극대화하는 생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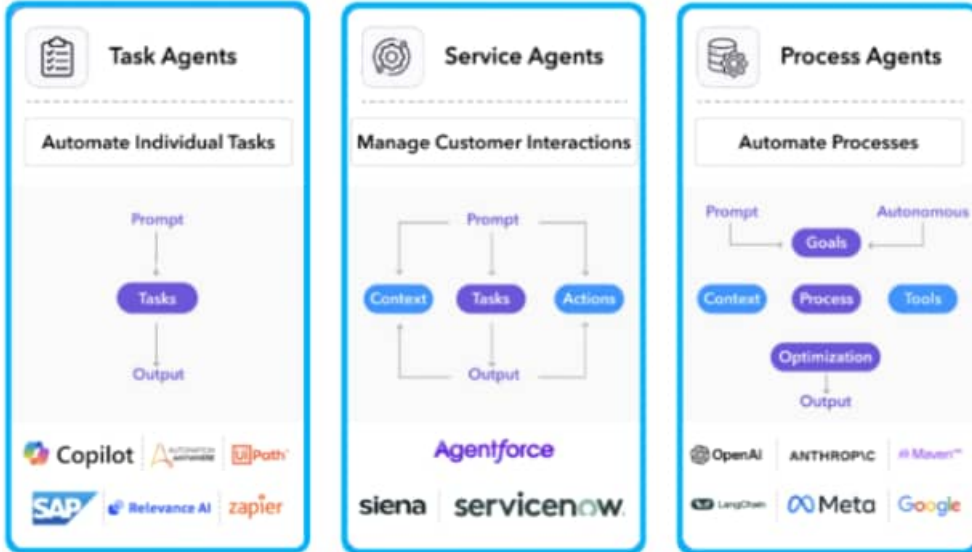
### 비용 폭발 문제

실제 비즈니스에 Agentic AI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마주하는 문제는 비용 폭발이다. Agentic AI는 챗봇처럼 API를 몇 번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각-실행-수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엄청난 양의 토큰을 소모하게 된다. 특히 Context Window Inflation이라는 과거 기억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할 때마다 토큰 소모량이 크게 누적되어 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nthropic의 경우 Prompt Caching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전 프롬프트의 처리 경과를 임시 저장하는 방법이다. 응답속도와 API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Agent의 자유도를 Rule Base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매번 하는 유사한 작업이나 순서가 있는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 같이 저장하고 룰을 세팅해 순서를 따르게 하는 방식이다. 사고가 필요한 부분만 자유도를 부여해서 토큰 낭비를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Token Cap 방식도 있다. 토큰 범위를 미리 설정하거나, Agent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몇 차례 나면 인간 개입을 자동으 요청하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현장에서 Agentic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





비즈니스에서의 Agentic AI 활용 사례

## Agentic AI 도입 분야 및 전략

### Agentic 분야는 성장 초기. 얼마나 어떻게 연결할까?

1단계 - 비정형 고유 지식 인프라 정비 및 저위험 영역 선제 적용: 먼저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업무 매뉴얼, 설계서, 법률 약관, 고객 문의 로그 등의 사내 고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정제하여 에이전트가 오독 없이 즉각 활용 가능한 벡터 및 지식 인프라로 전면 재정리한다. 초기 단계에는 실패 비용이 극히 낮고 성과 도출이 단순한 자료 수집 및 리포트 초안 구성 등 낮은 위험도의 작업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작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단계 - 규제는 기술 샌드박스부터: 망분리라는 견고한 보안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의 주요 산업군은 물리망 단절 중심의 단순 대처에서 벗어나 무중단 정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보안 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의 안전한 접근 권한을 에이전트에게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승인한다는 논리를 단계별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3단계 - Human in the Loop: 에이전트 자율성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오작동에 따른 책임 한계를 정립하기 위해 인간 관리자의 감시와 승인 절차(Human-in-the-loop)를 기본 프로세스로 정립해야 한다.

4단계 - 인터페이스 연동: 가상 환경에서 동작하는 에이전트들이 외부 3rd Party 소프트웨어들과 법적 및 규격적인 마찰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전용 연동 인터페이스(API)의 규격을 사내 시스템에 마련해야 한다. 에이전트에게 허용되는 데이터 접근 범위를 세밀하게 제어 및 회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미국 주요 선도 기업의 Agentic AI 활용 실증 사례

주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자사 제품군에 Agentic AI를 이식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액 성장과 고정비(대부분 인건비) 절감을 이뤄내고 있다. 사내 축적된 비정형 데이터의 무결성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안전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하에 사내 비즈니스 시스템인 ERP 및 CRM과 에이전트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① Salesforce: Agentforce라는 Agentic Tool로 자율 에이전트와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합했다. 사용자의 질문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어떤 행동을 취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운다. 에이전트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보안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서, 민감 정보 접근, 환각 현상 등을 차단한다. 또 실시간 외부 데이터 연동으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분야인 영업지원/이커머스 전략/마케팅 등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ServiceNow: 외부 고객 접점 보다는 기업의 내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 Agentic Service를 출시했다. 기업 내 여러 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시스템 장애를 자동 복구, 보안 사고 대응, 앱 생성, 인사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백엔드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③ Microsoft: Office와 Window 생태계와 Agent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 문서와 메일 기반의 범용적 자율성을 부여한 Agent를 추구한다. 회사의 부서별 전문 Agent, 개발자들을 위한 전용 Agent Builder 등 폭 넓게 Agentic AI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별로 Agentic AI 활용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아직 매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다. 또 일종의 범용툴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생산성을 창출할지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본다. 최근 많은 Agentic AI의 영역들이 인간을 돕는 것을 넘어 인간의 루틴한 업무를 대체하면서 Agentic Tool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해줄 고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분야의 아이러니이자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본다.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강릉에서 펼쳐질 ITS의 미래

### 강릉 ITS 세계총회를 향한 준비

ITS 세계총회는 '교통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 산업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이후 유럽·미주·아시아를 순회하며 개최되어 왔으며, 한국은 서울(1998)과 부산(2010)에 이어 2026년 강릉에서 세 번째 ITS 세계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국내 ITS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글로벌 무대로 더욱 확대하고, 학술·전시·비즈니스 프로그램 또한 한층 고도화하여 세계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개최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글로벌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세계총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ITS Korea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사무국  
김 아 영

## 그간 추진 경과

###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2025년 10월,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조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릉시장이 공동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현대자동차 전무가 대외협력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0명이 조직위원으로 참여해 총회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무 준비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조직위원회 출범에 앞서 2025년 6월 개소하였으며, 강릉시·한국도로공사·강원특별자치도·ITS Korea가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9월에는 국제회의기획사(PCO) 선정을 완료하며 행사 운영,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 총회 전반의 실무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 국내외 홍보활동 진행

강릉 ITS 세계총회는 2022년 개최지 확정 이후 국내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ITS 세계총회와 미주·유럽·아태 지역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ITS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 두바이 ITS 세계총회와 2025년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 등에서는 강릉 홍보관 운영과 국별 면담을 통해 총회를 적극 알리고 참가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참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 두바이 ITS 세계총회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

### BOD 및 IPC 회의 개최

2026년 3월에는 APBOD(Asia-Pacific Board of Directors)·WCBOD(World Congress Board of Directors) 회의와 IPC(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 회의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강릉 ITS 세계총회의 준비 현황과 학술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BOD 회의에서는 총회 준비사항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주요 행사장 현장시찰



IPC 회의

또한 선교장, 컨벤션센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도시정보센터 등 주요 행사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 진행된 IPC 회의에서는 강릉 세계총회의 주요 회의 주제와 세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접수된 논문 및 특별세션에 대한 심사·배정 작업을 수행하며 글로벌 ITS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프로그램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 주요 프로그램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한 입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장관회의, 공식·사교행사, 학술세션, 전시회, 기술시연 및 시찰, 시민참여형 부대행사 등을 통해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글로벌 ITS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2026itsworldcongress.org](http://www.2026itsworldcongres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2026itsworldcongress.org](http://www.2026itsworldcongress.org))

**장관회의**

총회 기간 중에는 약 20개국 교통·도로 분야 장·차관 및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기반 ITS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주제와 연계한 기초연설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AI 활용 방향과 한국의 정책 인사이트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학술세션**

학술 프로그램은 ITS 세계총회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글로벌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AI·ICT·빅데이터 기반의 융합형 미래 교통체계를 제시하고, 사람과 도시,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전(Safety), 포용성(Inclusivity),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핵심 키워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총회주제</b>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b>논문주제</b>	I. Sustainability & Safety II. Inclusive & Social Connection III. Shared Mobility & Resources IV. Localized ITS	1. Connected & Automated Driving 2. Smart Infrastructure & Traffic Management 3. Mobility Services 4. AI-Driven & Data-Centric Systems 5. Policy, Governance & Standards

**전체 프로그램 구성(안)**

시간	10월 19일(월)	10월 20일(화)	10월 21일(수)	10월 22일(목)	10월 23일(금)
09:00-10:00		전체회의1	전체회의2	전체회의3	학술 세션
10:00-11:00	개회식				전시회 & 기술시찰 - 시연
11:00-12:00	전시장 개관식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2:00-13: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00-14: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4:00-15:00	장관회의 (Roundtable)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폐회식
15:00-16: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6:00-17:00		학술 세션	학술 세션	학술 세션	
17:00-18:00	웰컴 리셉션				
18:00-	드론쇼	VIP 디너	갈라 디너	특별공연 (아이스쇼)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논문과 특별세션을 모집한 결과, 총 501편의 논문과 143개의 특별세션이 성황리에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심사와 3월 IPC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논문 499편과 특별세션 100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의 3개, 집행회의의 9개, 특별세션 100개, 논문세션 81개 등 총 193개의 학술세션을 구성하였다.

### 전시회

전시회는 글로벌 ITS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시공간과 다양한 비즈니스·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된다. 총 425개 규모의 전시부스는 2025년 8월부터 참가기업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99개 기업·기관이 385개 부스 참여를 확정하여 전체 부스의 90% 이상이 예약 완료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시장 내에는 ITS 수요·공급자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잠재 파트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 비즈매칭 시스템을 지원하며, 컨퍼런스 스테이지에서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ITS 피칭 세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릉 ITS 세계총회가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장 도면



## 기술시찰

기술시찰 프로그램은 ITS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의 우수한 ITS 운영 사례와 첨단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주요 ITS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시찰을 구성하여, 실제 교통·재난·도로 관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ITS 기술과 운영체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ITS의 기술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글로벌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제 협력과 산업 교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 기술시찰 프로그램

기술시찰지	주요내용
 <p>강릉시 도시정보센터 &amp; ITS현장설비 시연</p>	<p>강릉시 도시정보센터 견학 + 시연 (시연1)실시간 신호, 주차정보, 초정밀 버스, 스마트교차로 등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 집중 (시연2)화전교차로, 터널관리, 스마트횡단보도, 객체 검지시스템 등 안전 관제 기술 집중</p>
 <p>인제양양터널 &amp; 내린천휴게소</p>	<p>국내 최장 도로터널로, 터널 내 환기, 화재 대응, 비상통신 등 스마트 터널 관리 시스템 (내린천휴게소) 국내 최초의 도로 위 상공형 휴게소</p>
 <p>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amp; 고성 통일전망대</p>	<p>AI 기반 산불감지 시스템을 통한 산불 접수, CCTV를 통한 산불상황관제 및 시스템 운영 (통일전망대) 대한민국 동쪽 최북단 안보 거점으로 금강산 및 해금강이 보이는 전망대</p>
 <p>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amp; 덕평휴게소</p>	<p>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 등 고속도로 ITS 기술 (덕평휴게소)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대규모 고속도로 휴게시설</p>

##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개최를 향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대한민국 ITS 기술과 정책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중요한 국제 플랫폼이 될 것이다.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ITS는 단순한 교통체계를 넘어 도시와 산업, 환경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강릉 세계총회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등록이 공식 오픈되어 전 세계 참가자들의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보다 많은 글로벌 ITS 관계자와 기업·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와 참가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 운영,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며,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세계총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ITS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확대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강릉 ITS 세계총회의 주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과 특별행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ITS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및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 이미지





## AI 센서 융합과 암호화 기술로 스마트시티 안전을 선도하는 (주)세오

주식회사 세오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안전하고 이롭게 한다'라는 굳건한 신념 아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첨단 기술 기업이다. 세오는 기존 CCTV 영상 감시의 한계인 악천후 및 야간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에 레이더와 라이다를 결합한 고도화된 '센서 융합(Sensor Fusion)' 기술을 선보이며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시장을 본격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특히 차량의 궤적 및 위치 추적 등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써 돌발상황검지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서비스 확장성을 입증했다. 보안이 핵심 화두가 되는 ITS 현장에서 세오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국가정보원 검증을 마친 '영상감시장치 실시간 암호화 기술'에서 나온다. 영상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서버로 이동하기 전, 카메라 내부의 하드웨어 칩셋에서 실시간 암호화가 진행되어 중간에 패킷을 탈취당하더라도 원본 영상 복제가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현장 단 장비(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AI 엣지박스)부터 센터 솔루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서버운영 SW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 단계 솔루션 체인을 구축한 세오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탁월한 제품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세오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국내외를 아우르는 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반 인프라 기업으로 과감히 도약하며, 우리 이웃의 일상을 보호하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  
- (주)세오 김호군 대표

### 세오는 단순한 CCTV를 넘어, AI 영상분석과 센서를 융합한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집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CCTV는 실제 상황을 영상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악천후나 야간에 영상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고 센서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식별이나 검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레이더나 라이다는 이런 기상이나 야간에 센서의 기능적 단점이 적습니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단순 영상을 송출하는 단계에서 도로상황 또는 주변상황을 해석하는 기술이 가능해진 지금 보다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해서는 각 센서 간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오는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 참가하여 자사의 주요 기술을 시연하였다.

이에 CCTV+레이다, CCTV+라이다 등과 같은 형태의 센서 융합을 통해 각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탐지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각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황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돌발상황검지시스템에서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차량계적 및 위치를 추적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보취득과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ITS 현장에서 영상 유출 방지가 화두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증 마친 세오만의 '영상감시장치 실시간 암호화 기술'의 핵심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상의 유출은 카메라(엠펙터)부터, 네트워크 장비, 센터 등 다양한 단계에서 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오의 핵심 기술은 영상이 네트워크 망을 타고 서버로 이동하기 전, 카메라 내부(하드웨어 칩셋)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패킷을 탈취당하더라도 원본 영상 복제가 불가능하여 완벽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일반적인 관제 시스템과 비교해, 세오의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발휘하는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센서별로 장단점이 있듯이, 영상분석도 엠펙터 시스템과 센터형 시스템 모두가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서비스와 운영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오의 영상분석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오의 무인교통단속시스템과 주요 솔루션

특히, 세오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 라이다, 옛지형 영상분석 솔루션 등 현장 단에서의 다양한 솔루션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통합플랫폼 및 센터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세오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오의 모토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공공 IT사업은 교통, 방범 등과 같이 특정 분야로만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센터의 명칭이나 기능도 교통센터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스마트도시센터로 도시 전반의 기능으로 확장하고 연계-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과거 장비 하나로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의 고도화는 물론 각종 장비로부터 수집된 영상 및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시민 서비스 및 운영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세오는 CCTV와 영상분석 등 현장장비 중심으로 시작하여 실시간 영상분석이 가능한 AI 옛지박스부터 센터의 영상분석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센터-운영자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분석하여 각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제품화해 현재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AI 옛지박스 등 현장장비부터 보안장비, 통합플랫폼, 서버 및 통합운영SW까지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방범 및 영상감시 분야였다면, 이제 ITS 분야에서도 동일한 솔루션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현장부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각 단계와 분야의 특징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개발과정부터 제품화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빠르게 제품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세오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지정증서를 수여받았다.

**스마트시티 및 교통 기술의 발전이 세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세오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이와 관련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글로벌 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시티나 교통 등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에는 그 반영 속도와 체감 정도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세오와 같은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오는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반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 영역도 해외까지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오가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은 무엇이며, 직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히 조성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세오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안전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신념 아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창의, 도전, 존중, 미래를 핵심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오는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협업을 기반으로 유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통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첨단보안 솔루션이라는 업종 특성 속에서도 경직된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장벽 없는 투명한 소통,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화합하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문화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임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세오의 기술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미래 융복합 시대에 대중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세오는 영상감시장치와 첨단보안 솔루션을 통해 우리 이웃의 일상을 보호하는 따뜻한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기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당사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핵심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일상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안심'입니다. 세오는 기술의 발전보다 사람의 안전과 존중을 언제나 최우선에 두며, 미래 사회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세오 임직원들이 경주 역사탐방 수학여행 워크숍에 참여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도로 위 데이터를 시로 연결하다 AI 에이전트 기반 풀스택 플랫폼 기업 엠큐닉(MQNIC)

엠큐닉(MQNIC)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언어-지식 AI와 비전 AI(VLM), 그리고 AI 운영 자동화(AIOps)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AI 전문기업이다.

엠큐닉은 단순 AI 모델 공급을 넘어, AI 구축-평가-운영-개선까지 연결되는 Full-Stack AI 플랫폼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온프레미스 기반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가능한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 자연어 기반 실시간 영상 이해가 가능한 VLM 플랫폼, 그리고 운영 자동화 중심의 AIOps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운영 전주기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한 ITS-자율주행·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축적한 현장 경험과 Domain AI 역량을 기반으로 MaaS부터 자율주행 운영관제까지 연결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엠큐닉은 Microsoft Bing 지도플랫폼, BMW RTTI 및 커넥티드 카서비스, Tesla 맵 콘텐츠 서비스, Apple 맵 플랫폼 구축-운영 경험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역량을 축적해 왔다.

“ 미래 경쟁력은 데이터를 스스로 이해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시에 달려 있습니다. ”

- 엠큐닉 유승모 대표



엠큐닉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항 및 대규모 ITS 인프라 사업 등을 수행하며 축적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 시스템 구축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 도시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엠큐닉은 ‘2026 Emerging AI+X Top100’에 5년 연속 선정되며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11일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인공지능산업대상’에서 협회장상을 수상할 예정으로 국내 AI·모빌리티 산업 내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 에이전트와 Domain AI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와 산업 운영 환경 전체를 혁신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ITS·모빌리티 사업을 넘어, LLM·VLM·AIOps 기반의 풀스택 AI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엠큐닉은 ITS와 자율주행, 교통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 환경은 단순 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AI 기반 업무 혁신과 운영 자동화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Mobility Domain 역량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LLM, VLM, AIOps 기반의 Full-Stack AI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 AI 모델 공급이 아니라, 구축·평가·운영·개선까지 연결되는 End-to-End AI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폐쇄망(On-Premise) 기반 AI 운영 환경과 AI 운영 자동화(AIOps)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Mobility를 넘어 다양한 산업 영역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AI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엠큐닉이 구축 중인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은 기존 생성형 AI 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최근 생성형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에서는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 품질 검증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엠큐닉의 LLM 플랫폼은 단순 챗봇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국형 AI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온프레미스 기반 폐쇄망 환경 지원을 통해 민감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PDF, HWP, HWPX, PPTX, XLSX 등 국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검색과 응답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구축 이후 운영·평가 체계까지 포함한 End-to-End 플랫폼 구조를 제공하여 환각(Hallucination) 제어와 품질 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개 모듈형 도구로 구성된 End-to-End LLM 플랫폼

<p><b>01</b></p> <p><b>DocLayoutBuilder</b> 파일-정형-Q&amp;A 자동생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DF, DOCX, HWP/HWPX 등 문서를 네이티브 파일</li> <li>Q&amp;A SET 자동 생성</li> </ul>	<p><b>02</b></p> <p><b>RAGBuilder</b> 비주업 워크플로우 빌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적 워크플로우로 챗-에이전트를 구축</li> <li>하이브리드 검색 제공</li> </ul>	<p><b>03</b></p> <p><b>LableBuilder</b> 멀티모달 데이터 어노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텍스트, 이미지, 표, 음성, 영상 등 멀티모달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지원</li> <li>AI 학습 데이터 자체 구축</li> </ul>	<p><b>04</b></p> <p><b>BenchKit</b> LLM 모델 벤치마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객관적 모델 선정과 다중 분석 제공</li> </ul>	<p><b>05</b></p> <p><b>EvaKit</b> RAG 성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용 정밀도(Citation 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측정하여 RAG 성능 정량 평가</li> </ul>
---	---	--	--	--

<p></p> <p><b>문서 인식·적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DF·XLSX·PPTX·PNG 등 문서 유형 기반 인식</li> <li>시험 조건 기준 OCR 인식 정확도 94.69%</li> <li>문서내 텍스트를 검색 가능한 지식데이터로 전환</li> </ul>	<p></p> <p><b>근거 문서 기반 검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 조건 기준 문서 검색 성공률 99%</li> <li>문서 검색 평균 반환 시간 4.15초</li> <li>답변에 활용된 근거 문서 제공 구조</li> </ul>	<p></p> <p><b>질의응답 생성 AI</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 조건 기준 질의응답 정확도 93%</li> <li>평균 첫 토큰 반환 시간 4.87초</li> <li>근거 기반 답변으로 신뢰성 확보 지원</li> </ul>	<p></p> <p><b>품질평가·개선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40건 평가 기준 품질수용률 96.1%</li> <li>123건 개선 항목 완료 사례</li> <li>검색 실패-데이터 미착재 오류 유형 분석</li> </ul>
--	--	--	--

한국형 엔터프라이즈 LLM 플랫폼

## VLM(Visual Language Model) 기반 영상 AI 플랫폼이 기존 영상관제 시스템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영상관제 시스템은 대부분 사전에 정의된 객체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동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나 객체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모델 재학습과 개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엠큐닉의 VLM 플랫폼은 자연어 기반 Zero-shot 구조를 적용하여, 별도의 재학습 없이도 신규 객체-상황-이벤트를 즉시 탐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운영자가 자연어로 “역주행 차량 탐지”, “안전장비 미착용 탐지”, “특정 행동 패턴 검색” 등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즉시 이해하고 실시간 관제와 영상 검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실시간 관제와 사후 영상 검색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엠큐닉은 이를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공공안전·산업안전·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Vertical AI 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폐쇄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On-Premise 기반 VLM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VLM 기술이 단순 영상 분석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는 AI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엠큐닉은 AIOps 플랫폼을 통해 ‘운영 자동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운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AI 서비스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모델 성능보다 “운영 안정성”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체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엠큐닉의 AIOps 플랫폼은 관측 → 분석 → 판단 → 조치 → 학습 → 재운영으로 이어지는 Full Closed-Loop 기반의 자율 운영 체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p><b>01</b> <b>실시간 관측</b></p> <p>로그, 모델응답, 사용자 피드백 (VOC), 시스템 등 통합 메트릭 수집</p>	<p><b>02</b> <b>이상탐지 및 드리프트 감지</b></p> <p>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성능 변화 등을 자동 감지하며 선제 대응 지원</p>	<p><b>03</b> <b>지능형 분석&amp; 최적화</b></p> <p>AI 기반 상관분석 및 RCA 자동화에 따른 최적화 추천으로 개선된 의사결정 체계 운영</p>	<p><b>04</b> <b>자동 대응 및 학습</b></p> <p>검증된 파이프라인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모델 개선-배포 운영 데이터 학습 데이터 셋 자산화</p>	<p><b>05</b> <b>재운영</b></p> <p>자동 회귀 평가 게이트를 통해 학습 품질 보장 및 ROI 지속개선</p>
--	--	---	---	---

엠큐닉의 AIOps 플랫폼 운영체계

특히 기존 운영 환경이 장애 발생 이후 사람이 로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엠큐닉은 AI 기반 상관분석과 자동화된 운영 체계를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드리프트와 모델 성능 저하를 자동 감지하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동화된 MLOps 체계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리스크와 인프라 비용은 줄이고,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Ops가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AI가 스스로 운영을 개선하는 자율형 운영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엠큐닉이 생각하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은 단순 MaaS를 넘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은 단순 이동 서비스 연결을 넘어,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운영하는 AI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엠큐닉은 MaaS(Mobility as a Service)부터 자율주행 운영관제까지 연결 가능한 미래 수요 대응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운송수단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기반 교통 흐름 분석, 수요 예측, 신호 최적화, 돌발 상황 대응 등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교차로 신호 최적화, 역주행 탐지 및 자동 대응, 자율주행 운영관제 플랫폼 등 실제 현장 중심의 AI 서비스 플랫폼도 함께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도시와 서비스, 인프라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AI 기반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모빌리티 기반 AI 서비스 플랫폼**

교통 정체 및 돌발 사고 등 교통 현안을 AI 딥러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AI 서비스 플랫폼



02

**미래교통수요대응형 중계 플랫폼**

운송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MaaS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대응 가능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중계 플랫폼



03

**통합 아키텍처 기반 교통 운영/관제 플랫폼**

이기종 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대용량 장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자율협력주행 및 교통 인프라를 운영관제 하는 통합 플랫폼



미래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도메인 중심 AI 플랫폼 개념

2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엠큐닉이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과 혁신을 이끌어 내는 특별한 조직문화를 소개해 주세요.

엠큐닉은 AI와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기술과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이지만, 결국 기술도 사람의 협업과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엠큐닉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 중심의 성장'과 'AI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실천 중입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장기근속 포상을 받았고, 회사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함께 시간을 쌓아온 구성원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을 받은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엠큐닉은 사내 AI 경진대회(좌)와 AI 세미나(우)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AI 역량 강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부여하며,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엠큐닉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 기술과 비즈니스를 함께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빠르게 실행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협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Jira, Confluence, Slack, Google Drive 등 다양한 디지털 협업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술 협업, 문서 자산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 밴드 활동, 사내 동호회, 산행, 푸드트럭 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구성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 혁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자동 분석, 회의록 자동화, 디지털 문서 통합 관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 조직문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을 함께 발전시키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성장하는 조직”, 그리고 AI를 통해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미래형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AI 전환(AI)이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최근 AI 산업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실제 업무와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엠큐닉은 단순 AI 솔루션 공급 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과 운영 혁신을 함께 지원하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특히 LLM, VLM, AIOps, Domain AI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구축부터 운영, 개선까지 연결되는 Full-Stack AI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엠큐닉의 핵심 방향입니다. 또한 Mobility Domain에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통·공공안전·산업안전·도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AI 전환(AI)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데이터를 연결해 도시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그것이 엠큐닉이 만들어 가고 있는 미래입니다. 엠큐닉은 앞으로 AI·자율주행·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2026 엠큐닉 리더 워크숍'에서 임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 서비스 시범운영 침수 지하차도 통제정보, 내비게이션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

국토교통부, 2026. 4. 29.(수)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 (지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 서비스 운영 체계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계 대상 지하차도(서울·대전 총 83개소, 차단기 157개)

연번	지하차도명	지역	차단기	연번	지하차도명	지역	차단기
합계	총 83개소		157	42	개봉	구로구	2
서울시	총 73개소		131	43	개화	강서구	2
1	기락	송파구	2	44	고척2	구로구	2
2	문정	송파구	2	45	공항입구	강서구	2
3	석촌	송파구	2	46	구로역	구로구	2
4	송파	송파구	2	47	구로	구로구	2
5	신원	서초구	2	48	국회앞	영등포구	2
6	위례중앙	송파구	2	49	노들길	영등포구	2
7	모래내	마포구	2	50	등촌	양천구	2
8	서빙고	용산구	2	51	서부트러터미널앞	양천구	2
9	성산	마포구	1	52	신도림	구로구	2
10	월드컵	마포구	2	53	여의2	영등포구	2
11	익주로	중구	1	54	오금	양천구	2
12	충산	서대문구	2	55	구룡	강남구	2
13	퇴계로	중구	2	56	기양	강서구	1
14	매현	서초구	2	57	가포	강남구	2
15	대방	영등포구	2	58	광나루	광진구	1
16	동작	동작구	1	59	구반포	서초구	1
17	사평	서초구	2	60	금하	금천구	3
18	선암	서초구	1	61	도봉	도봉구	2
19	양재	서초구	2	62	노들	노원구	1
20	여의교	동작구	2	63	반포	서초구	1
21	염곡	서초구	2	64	상도	노원구	2
22	영등포	영등포구	2	65	성수대교북단	성동구	1
23	하계	노원구	2	66	수력	노원구	1
24	노천	도봉구	2	67	수서	강남구	2
25	담터	노원구	2	68	염곡동서	서초구	2
26	방학	도봉구	2	69	일원	강남구	2
27	월계2	노원구	1	70	잠두봉	마포구	1
28	월계3	노원구	1	71	장암	노원구	1
29	월계	노원구	2	72	화곡	강서구	1
30	정동	도봉구	2	73	암사초록길	강동구	2
31	군자교동측	광진구	2	대전시	총 10개소		26
32	답십리굴다리	동대문구	2	1	삼천	서구	2
33	동일로	중랑구	2	2	갑천	서구	2
34	마장	성동구	2	3	문예	서구	2
35	서울숲1	성동구	2	4	대동	동구	2
36	신내	중랑구	2	5	계룡로	서구	4
37	신답	성동구	2	6	도마	서구	1
38	중랑	동대문구	2	7	오랑	서구	2
39	오목	양천구	2	8	충촌	중구	2
40	외발산	강서구	2	9	홍도	동구	5
41	가미산	구로구	2	10	엑스포	서구	4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율운행선박 시대, “데이터로 연다” 해수부·산업부, 자율운행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

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 2026. 5. 7.(목)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5월 7일(목) 14시에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행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자율운행선박은 AI 모델이 센서, 항해장비, 기관설비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운항 판단을 하는 선박으로, 이번 AI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충돌회피, 항로 최적화, 고장 예측 등 핵심 기능에 필수적인 실제 해상에서 축적되는 실운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표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자율운행선박 AI데이터플랫폼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6~'29 (4개년)
총사업비	346.06억원(국비 300억원, 민자 46.06억원)
수행주체	산업부(한국산업기술기획기원)
사업 주요내용	▲ 학습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AI 모델 개발 및 활용

해수부와 산업부는 '25.12월부터 'M.AX 얼라이언스\*' 자율운행선박 분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조선·해운·IT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왔다. 그 결과, 오늘 행사에는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 기업, AI 기업, 연구기관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참여의향서 체결을 통해 기존 데이터 공유, 데이터 수집용 선박 지정 협력, 데이터 수집 장비 제공 등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다.

\* 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 : 제조·AI 기업 및 학계·연구기관 등 제조 AX 확산을 위한 민·관·학·연 역량을 총결집해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출범('25.9)한 협의체, 자율운행선박 등 11개 분과

사업수행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이하 “KRISO”라 한다.)는 자율운행시스템, 항해·조종, 엔진·기관, 원격관제·디지털트윈, 통신·데이터, 해상교통, 기상, 안전·보안 등 8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00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금일 행사에서 KRISO는 데이터별 표준 포맷을 공유하고, 실운항 데이터 수집 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실제운항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형조선사들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사들까지 자율운항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올해 개시될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시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실증 확대, 사업화, 국제표준 반영까지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수부·산업부 공동으로 기술개발, 실증·산업 확대,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제표준 주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도 발표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K-조선이 앞으로 만들어낼 자율운항선박의 경쟁력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서 결정된다”며,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결합해 세계 최고수준의 데이터 은행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이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 활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조선산업이 마주한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라는 변화의 중심에는 자율운항선박이 있다”며, “해운·조선 협력의 연장선인 금번 사업을 통해 축적하게 되는 운항데이터는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수부도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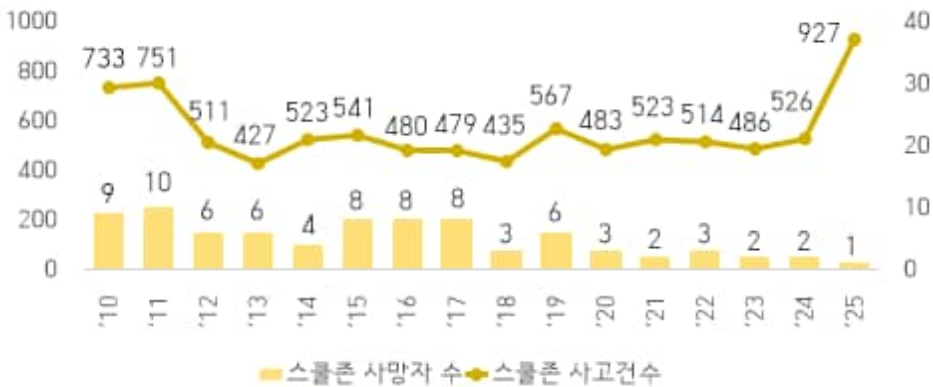
## 관계기관 합동,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2026. 5. 25.(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수 및 사고 건수(단위 : 명/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을 투입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 2.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 단속 강화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헛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 3.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24년168건 → '25년496건)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수출플러스지원단,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 개최 K-방산과 K-ITS의 전략적 만남,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

재정경제부, 2026. 5. 27.(수)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5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접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무기체계 지능화와 유무인 복합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첨단기술을 방산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양 산업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TS 기술은 AI 기반의 객체 인식통신(V2X), 통합 관제, 지능형 이동체와 디지털 트윈 등 민간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용 이동체 연계, 복합경계-통합지휘, 국방 자율주행, 안티드론 등 국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원단은 이러한 기술적 흐름에 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ITS 기술 강소기업과 방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방산의 하드웨어와 ITS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너지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협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K-ITS 기업 6개사와 K-방산 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 각 기업의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p>방산 분야 8개사주요협력분야</p>	<p>한화에어로스페이스(위지정보 기술), 기아차(자율주행), 한화시스템(드론 대응, 경계·지휘통제), (주)우리별(안티드론), 블루웨이브텔(탐지/식별), (주)에이아이리더(경계 솔루션), 트래시스(통합 관제), 포인드(AI 기반 탐지/식별)</p>
<p>ITS 분야 6개사주요협력분야</p>	<p>(주)딥엑스(온디바이스 무기체계), 뱀부스(디지털 트윈), (주)에스오에스랩(자율주행 센서), (주)에티포스(무인차량 운용), (주)지스(전장 지휘통제 보안), 쿠도커뮤니케이션(복합경계 대응)</p>

기술 발표 후 이어진 토의 세션에서 참석 기업과 유관기관들은 방산과 ITS 간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과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K-ITS의 첨단 기술력과 K-방산의 신뢰성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패키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두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첨단 교통서비스 연구용역 착수, DRT·자율주행 연계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새만금,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첫 출발, 첨단 교통서비스 본격 검토

재정경제부, 2026. 5. 27.(수)

새만금개발청은 5월 20일 새만금청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운영 방안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새만금지역의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입주 확대, 새만금 개발계획에 발맞춘 도시·산업·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첨단 교통서비스 및 인프라 도입 여건 분석과 도입 방안 마련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및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및 운영 방안 검토 등이다.

\*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DRT) 실증운영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수요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실증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새만금형 첨단 교통서비스의 실효성 검증에 사용하며 향후,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의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DRT 운영 권역 확대,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등 첨단 인프라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특성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반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기존 대중교통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만금만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통불편 줄이고 관광·공공서비스 더 가까이 지역 맞춤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2026. 5. 26.(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UAM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UAM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중점 발굴하고, 기체·운항·통신·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 지역 수요 적합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특히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계획이다.

### 「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공모 개요

구분	내용
공모기간	'26. 5. 29(금) ~ '26. 7. 28(화) * (신청주체) 광역지방정부의 장
선정사업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초기 상용화 준비를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1건 선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지원내용	① 사업계획 : 지역 수요 분석을 통해 교통·관광·공공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 도출 및 버티포트 기본구상, 최적노선 분석, 전파환경평가 등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원 ② 건축기획 : 버티포트 입지 및 규모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건축기획 지원 ③ 건축설계 : 버티포트 조성에 필요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 지원
평가절차	전문분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①서면평가 후 3배수 선정하고, ②현장실사, ③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사업 선정

### 공모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AI 기반 구조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살려주세요” 바다 위 조난 음성, 시가 듣는다

해양경찰청, 2026. 5. 26.(화)

앞으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와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묻힌 긴급 구조 요청을 인공지능(AI)이 찾아내어 기존 인력 중심 체계를 넘어 '인명 구조 적기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AI 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에 나섰다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잡음과 신호 미약 등 해양 통신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기존 인력 중심의 해상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추진된다.

바다에서 긴급신고는 육상과 달리 일반 전화뿐 아니라 무선 조난교신(VHF, MF/HF)과 V-Pass 등 디지털조난신호(DSC)까지 동시에 접수된다. 특히, 파도와 엔진 소음 등으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상황요원이 수많은 무선 교신을 직접 청취하며 긴급 상황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살려달라”, “침수 중”, “기관 고장” 등 음성 조난을 우선 식별하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새롭게 개발되는 해양 특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 무선 채널의 음성을 분석하여 조난신호 자동식별 ▲ 조난 음성 신호 실시간 문자 변환 표출(STT\*)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STT(Speech To Text) :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또한, 디지털 조난신호(DSC)의 발생 위치와 과거 신호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오발신 가능성을 판별함으로써, 오인 출동으로 인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해양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한 뒤 2029년 전국 해경 상황실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개발(R&D)은 점차 복잡해지는 해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상황실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법령 제·개정 동향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제2026-632호, 예고기간 : 2026.5.6.~ 6.15.]

####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으로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제89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 및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군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체계 마련(안 제256조의2 신설)

- 1) 「항공안전법」 제89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2) 항공교통본부장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항공교통업무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표준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
- 3) 또한 표준화 관련 협의를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b>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b>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li> <li>2.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li> <li>3. 공역관리</li> <li>4. 항공교통흐름 관리</li> <li>5. 항공정보·항공지도업무의 제공 및 품질관리</li> <li>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정, 공고 및 품질관리</li> <li>7.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li> <li>8.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li> </ol>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6-603호, 예고기간: 2026.5.21.-6.19.]

### [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1.20. 개정)되었으므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시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다. 시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라. 시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제2026-746호, 2026. 5.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b>제17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b>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b>제17조의3(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b>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등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 다만, 영상정보의 국외반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따른다.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조사등에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6346호, 2026. 5. 26., 일부개정, 시행 2026. 6. 3.]

###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신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첨부서류 일부 면제(제11조의3제1항 및 제11조의6제1항)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제품·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나 해당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변경·취소 신청서 및 첨부 서류(제11조의4제12항 및 제11조의6제14항 신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변경·취소 신청서에 관련 규제특례 확인서·임시허가서 사본과 해당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 수급전용계좌를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제36조의2 신설)

- 1) 손해배상을 받는 자가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해당 계좌를 기재하고, 그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다른 손해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ITS

# 월간토픽

2026년 5월은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관리·주차·교통안전·재난대응·물류 분야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스마트 신호제어·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와 표준화 경쟁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가속화된 한 달이었다.

## 국내 토픽

### 용인특례시, AI 포트홀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용인특례시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트홀 관제시스템을 총 300대 규모로 확대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마을버스 53대와 공무차량 147대에 관제 단말을 추가 설치해 기존 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제시스템을 확대하면서다. 이를 통해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

확대 구축된 시스템은 차량에 초정밀측위정보(RTK)와 AI 영상관제장치를 탑재해 주행 중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식이다....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시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3208건의 포트홀을 발견해 조치했다. 그 결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금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했고,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도 436건 줄어 약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일보, 2026.5.7.)

## 대구 노상주차장 빈자리 확인·결제 한번에

대구는 '노상주차장 스마트 전환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9개소 336면에 비대면 주차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차량번호인식(LPR) 기술과 CCTV를 활용한 관리체계 도입으로 부정 주차 예방과 주차 회전을 향상은 물론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심야 시간대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운전자가 출발 전부터 스마트폰 '탄력주차' 앱을 통해 목적지 주변 노상주차장의 빈자리를 실시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와 ARS 등 다양한 비대면 결제 수단을 도입해 현금 위주 결제의 불편과 요금 정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신문, 2026.5.5.)

## "자율주행차 봐도 놀라지 마세요"...광주 도심 전역 '테스트베드'

국도교통부와 광주시는 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 광주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실증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릭스, 삼성화재 등 민간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임월시 국도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광주가 실증도시로 선정된 핵심 이유로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학습인데, 광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검증하기에 광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무등일보, 2026.5.6.)

## 꼬불꼬불 산복도로, 부산 자율주행 기술력 키울 시험대

부산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자율주행 분야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부산을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다. 시는 부산 특유의 복합 도로 환경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급경사와 굴곡이 반복되는 산복도로, 향만 배후도로,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은 그간 자율주행 기술 구현의 난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시는 이를 데이터 축적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고난도 도로 환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도출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제된 데이터는 민간 기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국제신문, 2026.5.11.)

## 진주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구축

진주시가 최근 유동 인구나 교통량이 급증한 신진주 역세권 지역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행 방향의 신호를 녹색등으로 우선 제어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1년 국도교통부 지자체 ITS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통 정체가 심한 6개 구간에 구축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 인구 유입과 교통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경남도민뉴스, 2026.5.12.)

### 8천300대 CCTV에 AI 드론까지... 안양시 폭우 감시망 강화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관리하는 8,300여 대의 시시티비(CCTV)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상황 전파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법·교통·빅데이터 등이 연계된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 여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드론 안전 안내방송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접근하는 시민을 인공지능(AI)이 즉각 탐지하고 '하천 출입 금지'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드론이 자율 비행하며 실시간 경보 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뉴스24, 2026.5.14.)

### 구미시, AI·공간 전략 담은 미래도시포럼 본격 시동

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학경제권 중심도시 구미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AI 연계 산업·경제 및 에너지, 도시·농촌 공간특화 전략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 「구미 미래도시포럼」은 'AI'와 '공간'을 키워드로 총 7개 연구과제를 발굴했다. AI 분야에서는 ▲구미 피지컬AI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 ▲구미 특화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AI전환 대응 구미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과제로 설정하여 산업·에너지·일자리 등 지역 핵심 기반에 시가 가져오는 변화를 분석,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공간 분야는 ▲첨단 물류기술 기반 구미형 스마트 물류 거점 조성 ▲도심 노후주거지 맞춤형 재생전략 ▲테크 기반 농촌 복합생태계 구축방안 ▲농산촌 자원 활용 체류·정착 기반 조성을 주제로 구미시 도시·농촌 공간의 재편 방안을 도출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연구기간 중 과제별 전문가와 부서 간 간담회를 통해 과제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구미신문, 2026.5.19.)

### 양주시, 시로 교통안전 혁신: 사고 예방 앞장선다

경기도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AI 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한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양주시는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의 생활·이면도로 충돌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이 시스템은 시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의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시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경고 알람을 보내는 지능형 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해 돌발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브릿지경제, 2026.5.22.)

## 포천시,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 도입

포천시가 소방당국 소속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경기 포천시는 화재·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진행 방향의 녹색신호를 연장하거나 우선 부여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다. 긴급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이 줄어 현장 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무리한 신호 위반 주행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데일리, 2026.5.7.)

## 광명시, 교통·에너지·환경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

경기 광명시가 도시 전역에 흩어진 교통·환경·에너지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탄소중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스테이션'과 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행정 시스템과 신규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도시 운영 효율성과 탄소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데이터스테이션은 교통·환경·에너지·안전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물에너지정보, 탄소중립포인트,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기존 행정 데이터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가상거래, AIoT 기반 침수·홍수 관제, 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서비스 데이터도 함께 연동된다. (아주경제, 2026.5.13.)

## TS, 자율차·보행자 소통 기술 공개...국제 기준 마련 속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중국 텐진에서 개최되는 제139차 GTB(국제 자동차 등화장치 전문가그룹)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자율주행 V2H 커뮤케이션 기술 연구 성과와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V2H(Vehicle to Human) 커뮤케이션 기술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주행 의사를 도로이용자에게 시각적인 수단으로 알리는 기술이며,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와 도로면에 투사된 이미지로 자율주행차의 주행의사를 표현하면 보행자가 자율주행차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5.20.)

## 안양시 K-드론배송 서비스 산림 쓰레기 역배송 나선다

안양시는 오는 5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산림 쓰레기 역배송과 시민과 등산객을 위한 물품 전달 등을 사업 골자로 하는 산림 지역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2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K-드론배송 서비스는 국비 1억1,000만원, 시비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지역 드론 전문 기업인 (주)지아이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범 도입되는 산림 쓰레기 역(逆)배송 시스템은 사찰에 물품을 배달한 뒤, 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적재하고 하산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방식이다. 배송에는 적재 중량 40kg급 고중량 원치드론이 투입된다. (열린뉴스통신, 2026.5.24.)

## 해외 토픽

### 미 SAM 법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기반 마련

캘리포니아주 무소속 케빈 카일리 하원의원은 미국 하원에 공유 자율 이동성 법안(HR 86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CES 모빌리티 연합이 대중교통망 내 공유 자율 차량의 확장 가능한 도입을 저해해 왔다고 주장하는 연방 규제 및 자금 지원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TI, 2026.5.12.)

### 미 교통부, 오클라호마대 주도 자율화물운송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 지원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가 농촌 및 원주민 지역의 물류 효율성과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율화물운송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클라호마대학교 공과대학은 최근 미국 교통부로부터 1천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참여 기관들의 매칭 펀드 1천만 달러가 추가돼 총 2천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및 원주민 지역 물류 향상을 위한 자율 화물운송 시스템(ACCEL-RT, Autonomous Cargo Carriers for Enhanced Logistics in Rural and Tribal Areas)' 프로젝트로, 미국 교통부의 농촌 자율주행차 연구 프로그램(Rural Autonomous Vehicle, RAV)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7itsnews, 2026.5.9.)

### 미국 국토안보부, 커넥티드카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표...글로벌 표준 선점 나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5월 16일,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 CV)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가 차량의 설계부터 개발, 배포, 유지보수 전 과정에 걸쳐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넥티드 차량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차량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운행 시스템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자 DHS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DH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의 채택,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권고한다. 차량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외부 통신 시스템(V2X) 등 차량과 연결되는 모든 생태계 전반의 보안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유스연합, 2026.5.27.)

### 출근길 정체 줄인다... 아부다비, AI 기반 '스마트 신호 제어' 도입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가 인공지능(AI)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줄이고, 연간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스마트시티 전문 인터넷 매체 SmartCitiesWorld에 따르면, 아부다비는 주요 간선도로인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거리에서 '적응형 램프 미터링'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티타임스, 2026.5.18.)

## 테슬라, 中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사용 승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사용을 허가받으면서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 테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중국 규제 당국 허가를 거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공개했다. 감독형 FSD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 하에 인공지능(AI)이 차량 제동, 가속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과 캐나다·멕시코·네덜란드·리투아니아·한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이 추가되며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자신문, 2026.5.21.)

## AI 카메라, 교통 단속에 어떤 변화 가져오는가

최근 교통 관리자들이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더욱 미묘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어 쿼리 플랫폼의 가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두바이의 최신 AI 집행 도입은 새로운 다중 범죄 탐지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2025년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두바이 경찰은 KTC 인터내셔널 다중 센서 장치가 과속, 산만한 운전, 갑작스러운 차선 우회, 꼬리잡기, 불법 창문 틸팅, 과도한 차량 소음 등 6가지 위반 유형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Kapsch TrafficCom의 HoTCap 시스템은 2026년 3월 Intertraffic Amsterdam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HoTCap(Holistic Toll Capture)은 차량의 전체 형태와 색상 특성에서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 번호판 인식을 강화한다. 이 지문은 여러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부분적일 수 있음)과 결합하여 각 차량에 대해 완전한 견고한 신원을 구축할 수 있다. (tti, 2026.5.22.)

## 허난성: AI가 현대 교통의 새로운 그림

최근 2026년 허난성 교통 과학기술 혁신 회의가 정저우에서 개최되었으며, 동시에 "허난성 '인공지능+교통' 혁신 적용 실행 계획"(이하 "계획")이 발표되었다. 한 기자는 이 계획이 인공지능(AI)과 운송 부문의 심층 통합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 적용의 경로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허난 교통 산업의 새로운 생산력 육성 및 확장에 강력한 기술 동력을 불어넣으며 고품질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허난은 2028년까지 데이터, 모델, 컴퓨팅 파워를 아우르는 산업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반을 완성하여 20개의 벤치마크 운송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이다. (7itsnews, 2026.5.25.)

## 中, 'AI 기반 스마트카' 표준 선정 나선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 장비1사(司)가 26일 '2026년 자동차 표준화 업무 요점'을 발표했다. 자동차 표준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제 표준 협력 심화에 그 목적이 있다. 26일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요점'은 표준이 앞서서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며 ▷품질 안전 표준 향상 ▷녹색·저탄소 표준 갱신 ▷신형 분야 표준 선도 ▷미래 기술 표준 사전 연구 등 네 가지 특별 행동을 제시했다. "스마트커넥티드카(ICV)는 이미 비교적 성숙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련 표준 체계를 더욱 완비하는 것은 산업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통신, 2026.5.28.)

##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5.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양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200,000,000	2026. 06. 04.
일반용역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25,000,000	2026. 06. 08.
일반용역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유지보수	한국도로교통공단	94,149,000	2026. 06. 09.
일반용역	도로교통법 분법 연구	한국도로교통공단	90,000,000	2026. 06. 10.
일반용역	2026년 국토교통 웹사이트 공공엽 품질진단 용역	국토교통부	121,222,000	2026. 06. 10.
일반용역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용역	부산광역시	700,000,000	2026. 06. 10.
물품	서울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1,493,228,400	2026. 06. 11.
일반용역	2026년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인천광역시 서구	171,897,000	2026. 06. 11.
일반용역	서울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90,000,000	2026. 06. 11.
일반용역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한국도로교통공단	640,000,000	2026. 06. 12.
일반용역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352,000,000	2026. 06. 12.
일반용역	안동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협상)	경상북도 안동시	285,000,000	2026. 06. 17.
일반용역	2026년 울산항 CCTV 및 항만출입관리 유지관리 용역	울산항만공사	1,139,644,000	2026. 07. 01.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용역	함양울산선(함양-합천) ITS구축 책임감리용역	한국도로공사 본사	1,745,383,000	2026. 06. 11.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 일반사항

- 사업명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14.까지  
 사업예산 : 2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해사분야 AI·디지털 전환(AI·DX), 자율운항선박 개발, 저궤도위성 통신 상용화 및 해상풍력단지,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확대 추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 구축('21.1~) 이후 바다내비 이용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운용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미흡 (△단말기 설치 선박 약 1.1만척, △모바일앱 등록선박 약 5만척 ('26.2.기준))  
 특히,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등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피해가 직결되는 선박 단말기 전원 차단 행위 모니터링 체계 및 제재 규정 신설 시급

- ※ 「'26년 우리부 장·차관 핵심과제 선정」 : 권제누비아호 좌초 사고('25.11) 계기, 인적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 예방 필요성 증대 → 장·차관 주도 사고 예방시스템 고도화

### 주요 과업 내용

- (실태조사) 현행 법령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교통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외 해양교통환경 변화 분석 및 유사 제도운영 실태조사  
 (개정수요 발굴)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검토, 추가개정 수요 발굴 및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신규서비스 발굴) 해양사고 예방 실효성 제고, 선원복지증진을 위한 바다내비 서비스 기능 개선 정책 제언 및 신규서비스 발굴  
 (하위법령(안) 마련) 바다내비 서비스 제공주체 확대 등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 법령(안) 마련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24.12, 의안번호2207180))

### 문의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051-773-6143)

##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 일반사항

- 사업명 : 도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TAAS)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사업예산 : 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빅데이터·AI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 환경 마련 가능
-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활용 수준과 기대치의 지속적 상승으로 최신 UI/UX 트렌드 반영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필요
-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API 개발로 운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 지원 필요

### 과업 범위

- AI기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통계 기반 인사이트 분석 서비스」, 「XAI 기반 GIS 인사이트 분석 서비스」 구축
  - 교통사고 집중 대상 지점 도출, 개선사업 등에 따른 효과분석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구축
  - 데이터 시각화 및 사용자 경험(UX) 고도화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TAAS 및 개방체계 UI/UX 디자인 리뉴얼
  - 통계분석 및 GIS분석 서비스에 대한 온보딩 가이드 제공 및 주요 용어에 대하여 툴팁(Tooltip) 기반의 안내 제공 등
-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확장
  - 외부데이터 융합 위험요인 분석예측,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계절성 재난형 교통사고 특화 서비스 구축
  -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API 개발
  - 어린이 TAAS 서비스 디자인 개선 및 통계-GIS 메뉴 추가
  - 내부 플랫폼 기능 일부 이관 및 TAAS 활용사례 페이지 추가
-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자동화 및 효율화 등

### 문의처

한국도로교통공단 A디지털본부 A데이터전략처 / 박해수 과장 033-749-5266 / phsoo@koroad.or.kr

##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 일반사항

- 사 업 명 : 충주 관광 특화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35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단계 진입, 관광 및 생활교통 적용 확대 요구에 따라, 충주시 탄금공원 내 관광 특화형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관광 특화용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도모

### 과업 범위

- 관광 특화 자율주행 순환 셔틀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관광 구역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고도화 방안 및 신규 과제 도출

### 문의처

(재)충북테크노파크 미래모빌리티센터 / 043-270-2714

ITSK  
NEWS방산-ITS 융합 통한 해외시장 진출 논의  
방산-ITS분야 수출·수주협력 간담회 참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5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내 IT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방산 분야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국내 방산-ITS 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최근 AI, V2X 통신, 자율주행, 통합관제, 디지털 트윈 등 ITS 분야의 첨단기술은 민간 교통서비스를 넘어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군용 이동체 운용, 유무인 복합체계, 통합 지휘통제, 안티드론 분야에서 방산과 ITS 산업 간 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TS협회는 간담회에서 ITS 산업이 보유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방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합될 경우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출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TS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과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 수요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매칭, 수출 패키지화,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재직자 직무전환 역량강화 교육 성과 인정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우수기관 선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5년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종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공지능(AI)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직무전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실적, 훈련성과, 기업지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ITS협회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능형 교통체계(ITS), 자율주행, AI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급격한 산업 변화에 직면한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전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ITS협회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사와 교육생,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ITS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ITS 국제협력센터, AI 교통관리 주제로 6월 글로벌 ITS 웨비나 개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오는 6월 17일, 아태지역 ITS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네트워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6월 글로벌 ITS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ITS 분야 전문 미디어 채널인 'GITS News'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아태지역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글로벌 ITS 유관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특히 '사례 기반 AI 교통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AI 기반 교통관리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에 대한 주요 동향과 적용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협회 홈페이지 및 별도 안내 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행사 안내문 내 등록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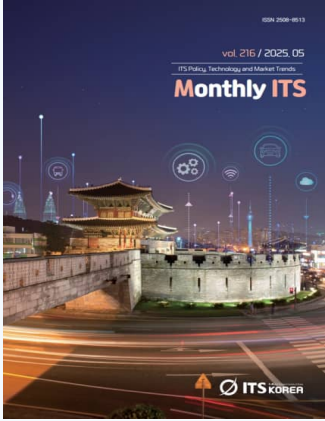


### 2026년 6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교통ITS 사업 분석	6.09(화)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90원
2	ITS 사업 감리 업무 요령(초급)	6.10(수) 1일(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2,110원
3	C-ITS 위치기반 서비스 반응형 웹 프론트엔드 개발	6.11(목)-12(금)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6,370원
4	노변장치 및 차량 보안 실무	6.12(금)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500원
5	Apache Kafka 활용 교통센터데이터 모니터링	6.16(화)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7,500원
6	자율주행 V2X 무선통신시스템 기초	6.17(수)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7,000원
7	ITS 시스템 변천 및 기술	6.18(목)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30원
8	자율주행 시스템 및 자율주행 기술	6.19(금) 1일(5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0,120원
9	QGIS 활용 교통 공간정보 분석(중급)	6.23(화)-24(수)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0,290원
10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6.25(목) 1일(8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5,070원
11	온 디바이스 시와 경량화 기술	6.26(금) 1일(6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4,170원
12	자율주행과 통합관제센터 기술과 운영사례	6.29(월) 1일(5h)	안양시 스마트도시통 합센터	3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19,360원

# Monthly ITS 기사 투고 및 광고 게재 안내

월간지 <Monthly ITS>의 기사 투고 및 무료 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투고된 기사는 <Monthly ITS>의 특별기고 형태로, 무료 광고는 내지의 전면광고로 게재됩니다. 회원사의 권익증진 및 폭넓은 정보제공과 ITS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격** ITS 관련 정책·산업·발주 정보·연구동향 등 전문지식·교양 정보지  
※ 매월 첫번째 화요일(월1회, 연간 총12회) 발간 및 배포

**지면** 50면 내외의 레터 사이즈(215.9×279.4mm), 컬러, 모조지120g

**특징** 협회를 대표하는 정기 간행물  
무료 배포 및 협회 홈페이지 업로드  
회원사 및 ITS 분야 종사자 주요 독자층 확보

## 기사 투고 안내

### 목적

- ITS분야 종사자 및 기관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 전달

### 내용

- 위치 : 내지 Special 특집
- 분량 : 15페이지 이내
- 내용 : ITS 관련분야 정책, 기술, 연구, 해외동향 등 ITS 전문정보, 기업경영, 인문 등 교양정보

### 자격

- ITS분야 종사자 및 산업계에 알리고 싶은 전 국민 참여 가능

### 방법

- 2개의 파일(①투고 신청서 ②원고)을 구분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광고 게재 안내

### 목적

- 회원사의 기술력, 제품을 홍보하여, 국내외 시장 확대 및 기업간 상호 협력 증진

### 내용

- 위치 : 내지 전면광고
- 분량 : 1~2페이지
- 내용 : 회사 홍보, 기술, 제품 홍보, CEO·중역 인터뷰

### 자격

- 협회 회원사는 누구나 게재 가능

### 방법

- 광고 내용은 광고주가 직접 제작
- 2개의 파일(①게재 신청서 ②광고 내용(pdf파일))을 구분하여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1(일동 707-2)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3층 전략기획팀  
H itskorea.kr E asiakys@itskorea.kr  
P 031-478-0451 F 031-502-0548